
올해 1월 30일에 열린 동국대 직접고용 미화근로자 직원증 수여식. 2018년 대타협 당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이사장 자광 스님의 노력이 담겼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팔정도 광장 연등 점등식에서 이사장 자광 스님, 윤성이 총장을 비롯한 학내 인사들이 연등행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호국 연무사 자광 스님 공덕비 제막식.



동국대 112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진행된 로터스관 기공식.


2017년 동국대 의료원 사기 진작을 위한 피자 공양.

"이사장, 명예·권력직 아닌 무한책임 직책"

'자광 스님' B1면에서 계속

매일 9시 30분 출근 후 첫 일과는 정각원에서 예불이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학내 구성원들을 만났고, 외식은 일절하지 않았다. 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매년 1회 수계법회를 열고 빠짐없이 참여했다.

"학내 대중들에게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부터 학교의 주인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종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발전의 상생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수년 간 교내 갈등을 유발했던 이슈인 '종단 개입'이라는 구호는 우리 대학의 설립 주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계종은 동국대를 설립한 주체입니다. 1906년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는 조계종단 주요 사찰들이 정재를 출연해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발전이 동국대의 발전이며, 동국대의 발전이 종단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과 동국대는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수행처 군포교 현장

자광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이전에는 1세대 군승으로서 더욱 이름이 알려졌었다. 스님을 군포교의 길로 이끈 것은 은사 경산 스님이었고, 사문으로 이끈 것은 유년의 부침때문이었다.

자광 스님은 3남 4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한국전쟁 당시 희생됐고, 어머니는 9살에 돌아가셨다. 이후 경찰이었던 형님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유년시절 생겨난 외로움으로 청소년기 심한 가슴앓이를 했다. 어느 날 전주에서 만행 중이던 스님을 만나 마음 속 고민을 털어놨다. 스님은 청소년 자광에게 수행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자광 스님은 곧장 화엄사로 찾아가 출가했고, 당시 화엄사 주지 최진여 스님의 소개로 경산 스님의 문도가 됐다. 자광이라는 법명은 경산 스님에게 받은 것이다.

종비생 1기로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한 자광 스님은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군포교 일선에 뛰어든 것은 장병들을 포교하라는 스승 경산 스님의 명을 받든 것이다.

"대학을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려는데, 군승으로 갈 스님이 부족하다며 입대를 요청받았습니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군대를 가라니 난감했어요."

1970년 임관한 자광 스님은 1995년 국방부 군종실장(대령)을 끝으로 전역하기까지 25년 동안 군포교에 매진했다. 군승으로서 자광 스님이 남긴 성과는 대단하다. 군종실장 시절 장병들의 종교 현황에 맞춰, 기존 불균형했던 군승과 군목의 비율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군승법사 정원을 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1세대 군승' 전설이 되다

은사 경산 스님 뜻에 따라 입대해
25년 군포교… 전역 후 승단 복귀
2009년 2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 완료

가진 것 환원하며 이젠 회향 준비

"학교 아는 사람 이사장돼야" 충언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으며 세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광 스님은 다시 삭발염의하고 비구로 승단에 돌아갔다.

"주위에서 연금받으면서 사회에서 불교활동을 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도 스님이었고, 지금도 스님이고, 앞으로도 스님입니다. '환귀본처(還歸本處)'는 당연했습니다."

종단에 복귀한 자광 스님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했다. 여기서도 군포교사에 한 획을 긋는 대작불사인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를 건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불자들의 성금으로 130억 원을 모연해 불사를 완성했다.

"28년 전 결혼식 때 받은 예물을 그대로 보내준 분과 아이 돌반지 상자를 보내준 분, 또 불편한 몸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모아 보내준 분, 요양원에서 용돈을 모아 보내준 분 등 불사 동참 때마다 이 불사는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 같은 스님의 노력에 감사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2018년 호국 연무사 경내에 공덕비를 세우기도 했다.

동국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최근 자광 스님은 동국대 숙원사업인 로터스관 건립 불사에 관심이 높다. 동국대 중문(혜화문) 일대에 연면적 2만5341m² 지상 3층,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로터스관'은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가 로터스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다. 재학생과 교수, 직원 등 총 1만8000여 명이 상주하는 동국내는 좁은 부지로 인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 2012년부터 중문 일대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며 건립 예정지 공원구역 해제, 중문 일대 주택 및 국유지 매입, 기획 설계 용역 및 지질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2018년 3월에는 신축건물 명칭 공모를 통해 '로터스관'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5월 112주년 개교기념식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십시일반 모연된 금액은 84억원으로 불자와 동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로터스관 건립은 동국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725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동국대를 사랑하는 불자와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달 뒤 자광 스님은 제39대 이사장 소임을 마무리한다. 후임 이사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제언해달라고 하자 곧장 "이사장은 권력과 명예직이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무한책임이 있는 직책으로 학교를 아는 사람이(이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있는 후임이 왔으면 하는 자광 스님의 바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마지막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는 죽을 준비하러가야지. 아름답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내 스님은 말을 이어갔다.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진 것 다 환원하고 이제는 회향하러 가야지요."

평소 자광 스님은 교내 안팎 행사에서 "여러분이 있으니 제가 있고, 제가 있으니 여러분이 있다"며 인연법을 강조했다. 자광 스님이 계획하는 '아름다운 회향'이라는 인연이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 기대가 된다.



